

새만금·서남권, 대한민국 청정에너지 산실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기자회견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완성할 것”

새만금 7GW 발전단지 구축
서남권 해상풍력 14조 투자
정부 RE100 기조에 발맞춰

전북자치도가 새 정부의 청정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에 힘입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약 9천833GWh로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북이 신재생에너지 역량을 갖추고 에너지 전환을 이룰 선도 지역임을 보여준다.

특히, 새만금 인근에 조성 중인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구축되면 신재생에너지만으로도 전력 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전북 지역경제 재도약의 핵심 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2018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인프라 구축 및 연구기관 유치, 전문인력 양성 등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기폭제 역할을 했으나, 지난 정부의 원전 중심 정책 추진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 포화로 도내 모든 변전소가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되어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을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에너지 주민소득 지급, 에너지 자립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전북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새만금 내측 태양광 중심의 3GW, 군산·서남권 해상풍력 4GW 등 7GW의 대규모 발전단지가 적기에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추가 지정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선정 등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



‘일자리정책도 협치 시대’ 3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열린 ‘2025전북 일자리 거버넌스 대표협의회’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 전세희 전북증기청장, 배지연 전주고용센터소장 등 유관기관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전북자치도>

되어야 한다.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2.4GW, 군산 해상풍력 발전단지 1.6GW 등 총 4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오는 2031년까지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고창~부안 해역에 총 14조7천여억을 투자해 조성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다.

전북은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를 시작으로, 수소융합 검사인증센터(완주),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부안),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시험·인증 특화센터(완주) 등 수소산업의 기술 상용화 및 인증 기반을 확충해 오고 있고,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제시했고, 대통령실 조직개편안에 시미래기획수석실 신설과 함께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 배치하고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전북자치도는 신재생에

너지 산업의 허브로 재도약하기 위한 핵심 아젠다인 ‘재생에너지 누리길’을 마련하고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누리길’은 전북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기업과 국가, 국민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북형 재생에너지정책이다.

/김영태 기자

글로벌 시장에서 RE100 이행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전북도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전원 확대를 통해 전력계통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지산지소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檢 수사 기소 분리 이견 없다”
개혁·민생·외교 구상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직접 설명하며 강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회견에서 “검찰개혁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원칙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동일 기관이 두 권한을 함께 행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지금은 개혁에 대한 국민 반대가 줄었고,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라며 “제도적 완성은 추석 전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기능을 국회로 넘길 수 있다면 넘기고 싶다”며 권력기관 전반에 대한 개혁을 예고했다.

최근 출범한 3대 특검에 대해서는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재건의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내면서도, “편향된 인사는 자칫 정치보복으로 흐를 수 있다”며 통합의 국정 운영을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이 우선”이라며, 산업 균형 발전과 두터운 사회 안전망 구축을 약속

했다. 주식시장 회복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과 주가조작 근절 같은 제도 개선이 반영된 결과”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출 규제와 관련해 “이번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투기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이 다수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재정건전성과 실질 효과를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한미 간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대해 “진행 상황이 쉽지 않다”며 “협상 시한인 7월 8일까지 마무리 여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방송 중단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며,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김영록 기자

전북 청년 일자리 위해 산·학·연·관 뭉쳤다

일자리 협력 거버넌스 가동
새만금개발청 등 신규 참여
청년·신중년 맞춤 일자리 논의

전북자치도의 산·학·연·관 일자리 협력 거버넌스가 대표협의회를 열고 본격적인 협력 강화와 정책 방향 모색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3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청년 인구 유출, 고용환경 변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맞춤형 정책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실질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거버넌스 대표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전세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배지연 전주고용센터소장 등 도내 일자리 유관기관 대표 21명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거버넌스의 실행력 강화와 협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거버넌스’는 지난해 9월 출범한 산·학·연·관 협의체로, 지역 산업 구조와 고용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발굴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대표협의회에서는 기존 22개 참여기관에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분부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협의체가 총 24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회의는 일자리 거버넌스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전북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강남호 교수, 원광대) ▲청년 인구유출 원인고 대응전략(이국용 교수, 군산대)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정책 방향(김수는 박사, 전북연구원) 등 3건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으며, 고용 여건 변화에 대응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전략이 논의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논의된 전문가 의견과 참여기관의 제안을 실무협의회 및 산업별 분과에서 구체화해 실제 정책에 신속히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성고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무더운 여름은 군산 선유도에서

개장 기간 : 2025. 7. 9. ~ 8. 17.

조국혁신당, 이재명 정부 검찰 인사 비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정의선택 검사들 피해 책임전가자들 영전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가 단행한 검찰 및 민정수석 인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대거 중용됐기 때문이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 가급적 발언을 안 하려고 했지만 오늘 검찰 인사

를 보니 (혁신당)차규근 의원,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황 사무총장이 지적한 내용은 과거 정부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정의를 선택했던 당시 검사들이 피해를 입고,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방치한 자들이 민정수석이 되었거나 영전했기 때문이다.

그는 “수사가 시작되자 김학의는 해외로 야반도주하려 했다”면서 “차규근(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의 현명한 선제적 조치로 그의 출국 시도 사실이 알려

지고, 이규원(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의 출국금지로 결국 해외 탈주가 좌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광철(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이규원과 연락한 죄로 기소가 됐다”며 “당시 봉옥(대검) 차장이 ‘내가 승인했다’라는 한마디만 있었어도 이규원은 지금도 검찰에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와 연루된 봉옥은 이규원을 팔아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이 됐다”며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과 연루된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을 수사해 기소했던 송강은 광

주 고검장으로 승진, 임세진은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영전했다”고 지적했다.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 검사 등은 지난 2019년 3월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가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을 떠났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자격요건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세 사람에게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소비자대상’ 수상

물가안정위원회 설치 등 소비자 친화 입법 공로 인정

금 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전주시갑)이 3일 소비자 친화 입법 부문의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소비자협회’와 ‘컨슈머포스트’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2025 대한민국 소비자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하게 전기요금과 난방비, 교통비를 인상하고 시장 물가를 잡는 정책 실패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자 무분별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견제 장치인 ‘공공요

또한 지역의 E-스포츠 활성화 법안을 통해 소비생활 불공정 행위 예방과 대한민국 소비자 모두가 동등하게 권리를 보호받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총장은 “앞으로도 국회가 국민 곁에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민생회복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김영목 기자

더불어민주당, 8천600명에 당대표 특별포상

비당원 포함 역대 최대 비포상자내년지선검점우려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도가 높은 당원과 비당원 등 8천600명에게 당대표 특별포상(1급 포상)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포상은 전북정치권에는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포상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포상 대상이 비당원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곧 내년 지방선거 구도가 더욱 복잡해짐을 의미한다. 당 대표가 주는 1급 포상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인센티브로 작용해 신인 가점과 함께 당락을 가르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21대 대선 승리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비당원을 포함해 대규모 포상을 기획하고 있다”며 “중앙당과 지역위원회를 모두

포함하고, 당규에 따라 대선 승리 기여 공로자에게 특별 포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제까지 없던 수준”이라고도 부연했다.

이번 포상 규모와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마련할 방침이다.

포상 대상은 당원과 비당원, 중앙당, 시도당 관계자 등을 모두 포함할 계획이다. 포상자는 상장과 함께 향후 공천 등 당내 평가에서 가점이 부여될 수 있다.

전북의 경우 대부분의 정치권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땀만 흘려왔던 만큼 이번이 포상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포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오는 지선에서 페널티를 안고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또 비당원도 대상이 된 만큼 지방선거 후보군의 복당도 초입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민주당 내부에서 들리는 상황이다.

/서울=김영목 기자

여성가족정책기관들, 전북서 미래 설계 협력

각 기관 정책 성과 공유 올림픽 유치 희망 간담회

전국 여성가족정책기관들이 전북에 모여, 성평등과 협력의 미래를 함께 설계했다.

전북자치도는 3일부터 4일까지 전북여성가족재단 및 전주시 일원에서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워크숍’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여성가족재단이 회장기관으로 주최하고,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가 주관한 전국 단위의 여성정책 교류행사로, 전국 14개 여성가족정책기관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 간 여성정책 격차를 해소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실질적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첫째 날에는 ‘미래전략 포럼’을 통해 2024년 각 기관의 주요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 추진 전략과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방향에 부합하는 지역 성평등 실천과제를 주제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으며, 전국 단위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방안



도 함께 논의됐다.

둘째 날에는 세계 스포츠계 핵심의제인 ‘성평등’ 기조에 맞추어 ‘전북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희망’ 간담회를 갖는다.

지난 2024 파리올림픽은 ‘완전한 성평등 올림픽’을 내세워 큰 주목을 받았고, IOC 최초의 여성위원장이 선출됐다.

이에 발맞춰 전북자치도도 간담회에서 성공적인 올림픽 유치를 위해 정책 전문가들과 연대의 지지를 모을 계획이다.

한편,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는 2006년 창립되어, 현재 전국 16개 지방 여성

가족정책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전북여성가족재단은 제19대 회장기관으로서 상반기 정기총회 및 해외연수 등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중앙부처 및 회원기관과의 간담회, 국제포럼 등을 계획하며 전국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오늘 논의된 과제와 연대를 바탕으로, 여성 모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전북도, 관광기업 맞춤형 컨설팅·아카데미 성료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과 전북자치도는 도내 관광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마련된 ‘관광기업 맞춤형 컨설팅&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단 관광기업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34개 유망 관광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업 후속지원을 적극 도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SNS 마케팅 교육을 시작으로, 참여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이 이어졌다.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 BM 수립 △정부지원사업 등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핵심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1:1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되었다.

안중현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각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센터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동반 성장형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유의식 완주군의장 “주인 빠진 통합 논의 폐기해야”

전주시장·시의장 TV 토론 제안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은 3일 “주인이 빠진 완주·전주 통합, 민주주의가 사라진 완주·전주 통합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도지사는 완주 군민의 요구로 통합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하지만, 이는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제시한 정치 공약으로 촉발된 것이지 완주군민은 동의한 적도, 논의한 적도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 의장은 “도지사는 행정 통합만이 마치 전북의 미래를 담보하는 유일한 대안

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그러나 전북의 발전은 균형발전과 상생, 협력체계의 강화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일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도, 선거 공약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도, 도지사 한 사람이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며 “도지사는 전북 전체를 끌어내리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장은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 의장에게 TV 토론에 입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통합이 되지 않을 시 도지사와 전주시장은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주=김명곤 기자

국회,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 통과



김민석 후보자

국회가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인준안 표결 처리에서 가결,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보고, 자진사퇴나 자명철회를 요구하면서 표결에 들어가자 본회의장에서 나

와 규탄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무총리인준안이 처리된 뒤에 본회의장에 입장, 상법개정안 등에 참여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4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29일만에 국회에서 인준을 받았고, 이 대통령은 국회의 인준에 따라 임명됐다.

총리 인준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석수는 167석으로 인준안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서울=김영목 기자

무더운 여름 어린이 건강관리 방법

식중독과 수인성 전염병

독소가 파괴 될때까지 조리 하기

음식재료 상온에 오래 보관하기

손 깨끗하게 씻기

우범기 시장 “지난 3년 백년대계 다져온 시간”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 미래 광역도시 도약 등 3대 비전·10대 전략 제시

“민선8기 지난 3년은 대내외적으로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전주시민과 함께 과감히 도전하고 혁신하며 완전히 새로운 전주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다져온 시간이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3일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힘껏 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 시장은 ‘준비된 변화, 힘차게 뛰는 전주’ 슬로건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대담한 도전 △미래 광역도시를 향한 혁신적 도약 △시민행복을 실현하는 일상의 대전환 등 3대 비전과 10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10대 추진 전략은 △전주올림픽 유치 △완주-전주 통합 추진 △광역도시 기반

확충 △경제·산업 고도화 △문화산업 메카 조성 △탄소중립 선도 △민생경제 회복 △교통인프라 혁신 △전주형 돌봄 강화 △청년희망도시 도약이다.

시는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올림픽 유치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부 올림픽 유치 위원회 설치 등 대한민국의 역할을 하나로 결집하는데 주력한다.

시는 전주올림픽의 핵심 공간이 될 호남 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지방도시간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세계와堂堂히 경쟁해 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시는 도시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자 광역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완주-전주 통합을 이뤄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시는 미래 광역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종합경기장 부지 조성, 전시킨벤션센터 건립공사 착수,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교도소 이전부지 사전절차 적기 추진’ 등 광역도시 기반을 더욱 전진하기로 했다.

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주형 착



한 소비자 운동인 함께장터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퇴직연금 및 내일채움공제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여기에 대광법 개정으로 광역교통망 확충 기회가 열린 만큼 광역도로 및 철도 등 관련 사업들이 정부 광역교통시행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올 하반기에는 기린대로 BRT 구축 공사에 본격 착수하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전주시, 건강증진 부문 ‘우수’ 평가

지역사회 건강증진 기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전주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사회건강증진 도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으며 건강증진 부문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시는 3일 ‘제17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2024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략 부문 성과 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제17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는 2024년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 결과 보고서와 우수사례 등 보건복지부 사업평가 항목에 따라 종합부문과 전략 부문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시는 시민들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활동 지원으로 △금연·절주·비만·영양 신체활동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구강관리 등 지역사회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했다.

결과에서 지역사회 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략 부문 중 성과 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시는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과 △학교·직장·경로당·복지관 등 다양한 생활터별 참여형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해 시민 건강 증진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 받았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수상은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해 얻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건강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우범기 시장, 전주 지방시대 국가대표 도시로

한인비즈니스 대회 성공적 개최 지방시대 3대 특구 선정등 성과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 도시문제 해결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 시장은 과감한 도전을 통해 전주의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지방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수도 서울과 경쟁해 당당히 쟁취한 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의 경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낸 대표적인 성과로 손꼽힌다.

우 시장은 전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했

지만 해결되지 못했던 현안은 종합경기장 부지개발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완주-전주 통합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지난 3년 동안 완전히 새로운 전주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해묵은 도시문제 해결과 전주의 대변혁에 공을 들여왔다.

전주의 심장부인 종합경기장 개발의 경우 야구장에 이어 종합경기장 주경기장까지 모두 철거가 마무리되면서 강한 경제전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마이스 복합단지조 거름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여기에 시는 드론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보급한 중주도시로서 2025 전주드

론축구월드컵 개최를 착실하게 준비해왔다.

제1회 드론축구월드컵은 오는 9월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제22차 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지방시대 3대 특구에 모두 선정되면서 국가대표 도시로서 위상을 재확인했다.

올해로 26화제를 맞은 전주국제영화제도 2년 연속 한국 영화 최대 출품 기록을 경신하고, 세계적인 영화제작기업인 쿠무필름스튜디오도 전주에 동지를 댈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와 경쟁하는 영화·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서 아동 차에 치여 숨져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아동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전주덕진경찰서는 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5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에 전주 덕진구 송천동에 위치한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지상 주차장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B(3)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는 체험관 직원으로 당시 퇴근길이었단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당시 가족들과 함께 체험관을 방문했는데 부모는 다른 자녀를 돌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양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술을 마시고 음주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사고 경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강릉시 등 10개 야간관광 특화도시 간 협력강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전략·상호 협력 방안 논의

전주시 야간관광 특화도시 상호 협력 방안 모색이 전주에서 진행됐다.

시는 3일, 4일 양일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10개 야간관광 특화도시 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여 ‘야간관광 특화도시 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정기회의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성공적인 운영과 도시 간 협력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관광 인프라와 매력을 갖춘 도시를 기준으로 지역의 문화와 야경을 연계한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야간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정기회의에는 야간관광 국제명소형 도시인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역시, 성장지원형 도시인 전주시와 강릉시, 여수시, 진주시, 공주시, 통영시, 성주군 등 총 10개 도시 대표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정기회의 첫날에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의 중장기 전략 발표 및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컨설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첫날 오후에는 팔복예술공장에서 전주 야간관광 대표 프로그램인 야간연회 공연콘텐츠를 공유하고, 야간관광 협의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주완산소방, 구급대원 폭언·폭행 ‘범죄행위’

활동 중 주취자에 폭행 당해 재발 방지·대응 매뉴얼 점검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구급대원 ‘폭언·폭행’ 행위들에 대해 ‘차단’을 강조했다.

최근 119구급 도내 활동 중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박덕규 완산소방서장은 이에 따라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현장대응 매뉴얼 등을 재점검 했다.

특히 119구급대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일선 활동 인력으로서 이들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현행법상 구급대원 폭행 시 ‘소방기본법’ 제50조,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도내에서 14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 중 8건이 주취자에 의한 폭행으로 분석됐다.

이에 전주완산소방서는 구급대원 대상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현장 사례 중심의 예방교육 확대 △폭행 위험 발생 시 웨어러블 캠, 구급차 내부 CCTV 등 적극 활용 증거 확보 강화 △폭행 사고 발생 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적극 대응 △주거지역 구급대원 상담 및 PTSD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며 “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의용소방대 16명 모집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가 지역 안전의 든든한 버팀목인 의용소방대 신규 대원 16명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12일간이며, 남성대원 12명, 여성대원 2명, 모래내시장전문대 2명을 포함한 총 1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의용소방대는 전문 소방대원과 함께 화재 초기 대응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활약하고 있다.

지원 자격은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

거나 상주 중인 주민으로,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고 신체 건강하며 봉사과 협동정신이 투철한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전문대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 그리고 소방 관련 자격, 기술, 경력 보유자는 우대 대상이다.

권기현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작은 용기를 내어 공동체의 안전에 함께해주는 한 분 한 분이 전주의 안전을 이끄는 주인공이 돼주실 것”이라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김윤철 전주시의원,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지역사회·지방자치 발전 기여

전주시의회는 3일 김윤철 의원(복지환경위원장)이 전북특별자치도시장의 회의를 통해 ‘전북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전북지방의정봉사대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지방 의정 발전 및 주민화합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 의원은 주요 현안에 대한 대안 마련과 정책 제안은 물론, 현장 중심의 활발

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9.10.11대 전주시의회 의원직을 역임하고 12대 의회에서는 복지환경위원장을 수행하고 있는 4선 의원이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믿고 맡겨주신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게 돼 감사할 따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뉴트라코어 임실공장 준공…건강식품 ‘새 동력’

총 75억 투입 오수2농공단지에
도내 농가 계약재배·CRO 확보
천연물 기반 대량생산체계 구축

전북자치도는 3일, 천연물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뉴트라코어의 임실공장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총 75억 원이 투입돼 임실 오수제2농공단지에 들어서는 ㈜뉴트라코어 원료 생산 공장은 전북자치도가 감정을 지닌 식품·농생명 산업과의 시너지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박정규 도의원, 심민 임실군수, 장종민 임실군의회 의장, 최범락 뉴트라코어 대표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해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 성과를 함께 축하했다.

㈜뉴트라코어는 천연물의약품, 건강

기능식품, 화장품 원료 개발과 인체적용 시험(CRO) 및 인허가 지원까지 수행하는 R&D 전문기업이다. 특히 체지방 개선에 도움을 주는 와사비유 추출물 등 3종의 원료가 식약처 기능성 원료로 인증되었으며, 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이번 임실공장에 구축했다.

임실공장은 총면적 6,612㎡ 규모로,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추출·농축 공정을 갖춘 전문 생산시설이다. 앞으로 ㈜뉴트라코어는 도내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청정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생산한 기능성 원료를 전국 및 글로벌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최범락 뉴트라코어 대표는 “전북자치도의 청정한 원료 자원과 당사의 천연물 R&D 역량이 결합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며, “임실공장이 지역 농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3일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뉴트라코어의 임실공장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도>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뉴트라코어의 성공적 정착과 성장을 위해 ‘1:1 전담 공무원제’ 등 밀착 행정지원을 지속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천연물·기

능성 식품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한병렬 기자



전북대학교병원 4일 도 지역새싹지킴이병원 지정 21개 의료기관과 간담회 및 현판전달식을 열었다. <사진=전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지역 아동학대예방 의료체계 강화

새싹지킴이병원 간담회 개최
추가지정기관 현판 전달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4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새싹지킴이병원으로 지정된 21개 의료기관과 함께 지역기반의 유기적인 의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및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북광역새싹지킴이병원 아동보호위원회(위원장 고은정 신경외과 교수) 주관으로 전북대병원 본관 3층 온고홀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전북자치도청을 포함해 전주시청, 남원시청, 지역 새싹지킴이병원 20개소 담당자 등 총 35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슬아동병원과 미래연합의원을 새싹지킴이병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어 △2025년 새싹지킴이병원 사업 추진 계획 △2024년 전북 광역새싹지킴이병원 결과 보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 등이 이뤄졌다.

고은정 위원장은 “아동학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예방해야 할 중대한 과제이고 의료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관심과 민감한 대응이 한 아이의 삶을 지켜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사회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각 기관이 힘을 모으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지난 2021년 광역새싹지킴이병원(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김은지 기자

전북녹색구매지원센터, ‘녹색소비교육’ 강사 양성

‘녹색소비 활성화’ 첫 활동
유통·컨설팅·교육 본격화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은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에 선정되어 지난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전북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 구매법 제17조의 3에 근거해 민간부문 녹색소비 촉진·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기관이다.

이에 따라 전북녹색구매지원센터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내에 녹색제품 전시관과 사무실을 갖춰 친환경 소비문화 형성 위한 녹색소비교육 △도내 녹색소비 증대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녹색제품 인증 전북기업 컨설팅 및 유통활성화 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

센터는 현재 전북을 포함해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에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녹색구매지원운영기관 선정은 지난 6월 전북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됐다.

전북녹색구매지원센터는 첫 활동으로 오는 7월 8일 오후 2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서 ‘녹색소비교육’ 위한 강사양성교육’을 개최한다.

주요 강의 내용에는 △전북녹색구매지원센터 주요 활동계획 △녹색소비 의미, 녹색구매지원센터 역할과 녹색구매제도 △청소년과 성인 대상별 녹색소비 교육 방법론 등이다.

특히 이날 녹색소비교육 사례실습 워크숍을 배치해 교육 참가자들이 교육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강의에는 김보금 전북녹색구매지원센터 센터장, 유미화 GCN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여한다.

강의신청은 전북녹색구매지원센터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오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보금 전북녹색구매지원센터 센터장은 “전북녹색구매지원센터 개소는 40여년 동안 ‘소비자권익’을 위해 활동한 단체인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위해 도민과 함께 ‘녹색전북’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을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북도의 친환경 녹색소비 문화



형성과 친환경 소비자 양성을 위한 밑거름이 될 ‘녹색소비교육’을 위한 강사양성 교육’에도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JB금융그룹, 道 및 7개 지자체에 ‘고향사랑’ 기부

총 1천850만원 전달
도민 복리 증진·지역발전 활용

전북자치도는 3일 도청에서 JB금융그룹 계열사인 JB우리캐피탈이 전북자치도 분청을 포함한 7개 시군에 총 1천85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는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 송상재 도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원호 전북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최재원 JB우리캐피탈지부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와 지속적인 참여 확대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기탁식은 고향사랑기부라는 제도 취지에 공감하고 동참 중인 전북은행이 자발적으로 JB금융그룹 계열사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마련됐다.

기탁에 참여한 JB우리캐피탈은 총

179명의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의지를 실천했으며, 민간 금융사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기여 모델로도 주목받았다.

또한 전북은행은 올해 초 1천271명의 임직원이 약 1억3천8백만원을 전북자치도 및 시군에 기부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모범적 민간 참여사례를 선도해왔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기부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참여가 담긴 상생의 실천 사례다”며, “기부금은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물·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전북자치도는 3일 도청에서 JB우리캐피탈이 7개 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는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lovegohyang.go.kr), 은행 앱(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 액티부키

(놀고팔)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 대면 창구에서도 가능하다.

/정소민 기자

농촌진흥청, 청년 체감 농업정책 창출 ‘우수’ 선정

국무조정실 실적종합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농촌진흥청은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2024년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추진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추진 성과, 시행계획 이행도, 청년과의 소통·참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농촌진흥청은 △창농 활성화 통합 서

비스 제공 △글로벌 농업 인재 양성 등

기관 맞춤형 정책 발굴과 확대, 청년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뚝뚝!청년농부 누리집’을 운영,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농업인과 예비 청년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12월 시범운영을 시작, 월평균 방문객은 1만 3,000여 명에 달한다.

영농 정착 지원 정보, 농업 경영 역량 강화,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교육·사례 등을 한국에서 알아볼 수 있게 해 청년농업인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

다.

또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에 농과계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을 파견, 국제적 경험과 전문 역량을 겸비한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파견 연구생들은 개발도상국 현지 농업 연구기관과 협력해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협력사업 관리 등 실무경험을 쌓으며 세계적 인재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스마트농업을 선도할 청년인재를 발굴·육성하는 ‘스마트농업 전문가 육성’, 농산업 분야 창업 및 경영·

판촉(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청년농업인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정책과 노형일 과장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예비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농업·농촌에 뿌리내린 청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국민연금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주제 강연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초청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국민권익위원회 이명순 부위원장을 초청해 청렴특강을 개최하며 공단 청렴도 향상을 도모했다.

이번 특강은 청렴 실천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단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높여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국민연금은 지난 2일 이명순 부위원장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주제 강연을 본부 글로벌기금관 2층 컨퍼런스를에서 가졌다.

강연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청렴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정책 △공직자가 알아야 할 부패방지 법령과 제도 △공직자의 리더십 등이다.

공단은 강연 이후 이명순 부위원장과 전북지역 주요 공공기관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북대학교병원,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감사들은 ‘감사 업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공유와 청렴 문화 확산 위한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김영태 기자

🔥 **온열질환 주의보** 🔥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반드시 기억하고 습관화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1 물

탈수가 생기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십니다



2 그늘

나무그늘이나 차양막등을
활용하여 햇빛을 최대한
차단합니다



3 휴식

충분한 휴식을 하고
무리 하지않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이야기’ 군산시, 시민토론 참여자 모집

군산시가 오는 11일 시청에서 개최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이야기 ‘우리들의 군산’에 참여할 시민토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14회 인구의 날을 맞이하여 마련된 ‘우리들의 군산’은 시민과 함께 인구문제를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 중심 소통의 장’으로 1부 세미나·2부 시민토론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1부 세미나에서는 인구학 전문가인 이상민 박사(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의 특강과 패널토론이 펼쳐진다. 주제는 ‘우리나라의 인구변화와 그 사회경제적 영향, 그리고 군산의 인구 대응 전략’으로 참석자들은 지방의 인구 축소와 노인 증가에 따라 발생 되는 경제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이어지는 2부 ‘확자치결 시민토론회’에서는 △아이키움 △청년키움 △지역살기 △생활인구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분임 토의에 참여하여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시민토론회 참여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신청은 7월 8일까지, 포스터 내 QR 부호(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팔도밥상 페어’에서 지역 우수 먹거리 알린다

익산시가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역 농·특산물 가공제품 홍보에 나섰다.

익산시는 3일부터 오는 6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팔도밥상 페어 2025’에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의 우수 식품업체가 참여하고, 구매력 높은 2040 핵심 소비층 약 5만 명이 방문하는 대규모 오프라인 식품 전문 판매전이다.

시는 초이리브루어리, 딸기팜, 황수연전통식품, 꽃채움 등 지역 소규모 가공업체 4개소와 ‘익산시 통합부스’를 운영해 지역 먹거리의 우수성을 알린다.

부스에서 익산 농산물을 원료로 한 다양한 가공 제품 20여 종을 소개하고 현장 판매를 진행한다. 주요 제품은 △고구마 소주 ‘리 28’ △가공센터에서 진공 농축한 ‘딸기잼’, ‘딸기청’ △콩 단백질을 활용한 ‘건강쉐이크’ △식용꽃 ‘꽃차’ 등이다.

한 참가업체는 “소비자들의 반응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 유사 업체와의 교류도 가능해 이번 팔도밥상 페어 참여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제품 개선과 시장 확장에 좋은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폭염 속 산업재해 예방 ‘총력’…온열질환 대응 강화

정읍시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특보 속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먼저 옥의 작업이 많은 시 소속 근로자 400여 명에게 냉감 티셔츠, 식염도당, 모기·진드기 퇴치제 등을 지급했다.

특히 온열질환 취약 작업장에 대해선 매 작업 전 자율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해 예방수칙 준수를 체계화했다.

이와 함께 온열질환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휴게시설 설치 여부와 온열질환 민감군(신규 배치자,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에 대한 건강관리 상태,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대한민국 지속가능 도시평가 ‘1위’

전국 75개 자치시 중 1위 시민·미래·환경 고른 성과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한국지역경영원이 주관한 ‘2025 제2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에서 자치시 부문 종합 1위에 선정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속가능도시 평가’는 도시의 현재 역량과 미래 대응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평가로, 올해는 전국 226개 기

초지자체와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제2회 평가에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시민행복도시 △혁신미래도시 △생명친화도시의 세 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총 88개의 공공통계 기반 지표를 통해 종합 순위를 도출하였다.

군산시는 전국 75개 자치시 중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종합 1위에 올랐다.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세 부문에서 고른 평가를 받은 결과로, 도시의

현재 삶의 질과 더불어 미래 대응 역량, 시민의 사회적 안정성과 환경친화성까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진 정책 성과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중심에 둔 정책으로 전국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도시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수도권 대학생 주거 부담 덜다

행복기숙사 입주생 모집

익산시가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익산시 학생들의 주거 부담 완화에 나섰다.

(재)익산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현율)은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2학기 행복기숙사’ 추천 입주생 13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한국사학진흥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흥제, 동소문, 개봉동, 독산동 등 수도권 행복기숙사에 입주할 학생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추천된 학생은 발급받은 합격증을 통해 각 기숙사의 모집 일정에 맞춰 개별적으로 입주를 신청해야 하고, 최종 입주 여부는 기숙사에서 결정한다.

입주를 완료한 경우 (재)익산사랑장학재단이 2학기 동안 월 14만 원씩, 총 84만 원의 기숙사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 소재 대학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 신청자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중 1인)가 공고일 기준으로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서류를 준비해 (재)익산사랑장학재단에 우편으로 제

출하거나 교육청소년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행복기숙사 입주생 신청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재)익산사랑장학재단 누리집(ilsaf.or.kr)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도심 곳곳에 ‘스마트 그늘막’ 설치

폭염 속 보행자 안전 강화

정읍시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13개소에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 그늘막은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신대인역 앞 △수성동 주공아파트 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설치됐다.

기온과 풍속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 그늘막이 스스로 개폐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과 학생 등 보행자들이 횡단보도 대기 중에도 잠시나마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폭염 대응 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매년 반복되는 폭염 상황 속에서 시민의 불편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그늘막 외에도



스마트 그늘막

<사진=정읍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얼음생수 비치 등 폭염 대응 정책이 병행 추진 중이고 향후에는 폭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스마트 그늘막 설치

는 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안전과 쾌적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7월 청렴도 향상… 3개 시책 본격 추진

청렴 서약식·골든벨 등 추진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7월 한 달 동안 3가지 주요 청렴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책들은 ‘신규 이통장단 청렴 서약식’, ‘2025년 청렴 약속 데이 & 골든벨 행사’, ‘간부 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에서 탈출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청렴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신규 이통장단 청렴 서약식 (7월 7일) 먼저 7일에는 군산시 신입 이통장단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이 개최된다.

서약식에는 이통장단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군산시의 관행적 부패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

하는 청렴 서약문을 낭독한다.

이어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및 청탁 거부, 부당이득 미취득’을 약속하며, 금품 및 향음 수수 금지 등 엄격한 청렴 준수를 다짐한다.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리더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행정과 이·통장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군산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 2025년 청렴 약속 데이 & 골든벨 행사(7월 10일) 10일에는 ‘2025년 청렴 약속 데이’가 열린다. 이날은 군산시와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 군산 실천 공동선언식’이 진행된다.

세 기관 대표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청렴 의지를 공유하게 된다.

또한 전 직원 대표가 청렴 결의문을 낭독하고 모두가 청렴구호를 외치는

결의의 시간도 갖는다.

이어 ‘청렴 골든벨’ 퀴즈 대회를 통해 청렴 관련 지식을 점검하고 참여자들의 청렴 의식을 한층 고취 시킬 계획이다.

△ 간부 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 (7월 14일) 마지막으로 14일에 4급, 5급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이 시행된다.

이번 교육은 부패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간부 공무원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시는 이를 통해 군산시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한 조직문화를 선도하고, 부패 예방에 앞장서는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시는 청렴 중심 행정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청렴 도시 군산’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개최

파리올림픽 금메달 안세영 출전

전국 최정상 배드민턴 선수들이 익산에서 치열한 승부를 펼친다.

익산시는 오는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익산시 실내체육관에서 ‘2025 대통령기 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진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권위 있는 대회로, 전국에서 700여 명의 대학부 및 일반부 선수들이 참가한다.

선수들은 남녀 단식·복식, 혼합

복식 등 전 종목에서 승부를 겨루며, 대회 성적은 부문별 우수 선수 발굴 및 국가대표 선별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4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랭킹 1위 안세영 선수와 2025 인도네시아 오픈남자복식 우승을 기록한 세계랭킹 6위 서승재 선수가 출전해 배드민턴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이번 대회가 지역 체육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선수단 및 가족 방문에 따른 숙박·외식업 등 지역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2025 제2회 일자리정책 실무협의회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발굴 논의

군산시가 지역 일자리 현안과 정책 논의를 위한 ‘2025년 제2회 일자리정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2일 열린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군산상공회의소, 군산시소상공인연합회 등 민·관·산·학 관계 기관·단체 등 위원들 약 50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상반기 추진된 대표적 일자리 관련 사업을 소개하고 실무협의회 4개 분과별(△청년 일자리 △신산업 일자리 △생활밀착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신규 일자리 사업 관련 논의와 해법 모색을 위해 마

련됐다.

발굴된 사업을 살펴보면 ‘청년층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지원 사업’ 등 근로자에 집중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이들 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꼭 필요한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실무협의회에서 발굴한 일자리 사업은 실무적인 검토 후 ‘일자리 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의 효과성을 더욱 극대화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사랑을 걷는 밤…정읍 ‘달빛 사랑숲’ 감성 명소로

한여름 밤, 달빛 아래 사랑을 속삭이고 소원을 빌 수 있는 숲길에 정읍에 펼쳐졌다. 정읍시 전설을 테마로 한 ‘달빛 사랑숲’이 감성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

정읍사공원을 중심으로 조성된 이 숲길은 낮에는 자연의 싱그러움을, 밤에는 조명과 조형물이 어우러진 몽환적인 분위기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사랑과 소원을 테마로 꾸며진 총 1.2km 산책로는 연인, 가족, 친구 등

누구나 함께 걷기 좋은 공간으로, 미디아트와 조형물이 곳곳에 설치돼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올해는 ‘달사 1001(달빛 사랑숲 100일 동안 1가지의 소원)’이라는 특별 테마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방문객이 이곳에서 100일 동안 1가지 소원을 정성껏 기원하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아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더욱 깊이 있게 전달한다.

/정읍=김정인 기자



주말엔 익산 왕궁보석테마관광지로 떠나요

익산시가 짜릿한 롤글라이더와 체험이 어우러진 특별한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익산시는 오는 5일과 6일 오후 3시부터 왕궁보석테마관광지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롤글라이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새롭게 개장한 롤글라이더를 알리기 위해 기획된 행사

로,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내 가족공원에서 롤글라이더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체험 프로그램은 △마룻 투명부채 만들기 △천연 모기퇴치제 만들기 △샌드아트 마룻이 그리기 △공기돌 꾸미기 등 4개가 운영되며,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군, ‘완-전 상생방안’ 정면 반박

유희태 군수 긴급 기자회견서 ‘상생발전 105개 방안’ 반대 표명 “검토할 가치조차 없어”

유희태 완주군수가 3일 완주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표된 전주·완주 상생발전 105개 방안에 대해 “완주군민의 뜻을 무시한 일방적 통합 시도”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군수는 “완주군은 일관되게 일방적인 통합 추진을 반대해 왔고, 이번 상생발전 방안 역시 통합을 전제로 한 일방적 계획에 불과하다”며 “군민이 배제된 통합 논의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생방안은 전체적으로 행정 통합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방적 통합에 반대해 온 완주군 입장에서는 검토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군민 의사를 무시한 채 통합 추진을 전제로 한 계획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완주군의 분명한 입장이다.

또한, 각 사업은 법적 근거와 추진 일정, 예산 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재원 마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과 신뢰성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사업 구성 과정에서도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특정 단체나 일부 찬성 측의 입장만 반영됐다. 이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이 통합 이후 통합시의 부채로 전가될 수 있으며, 이는 군 지역 주민에게 도시지역 부채까지 떠안게 하는 불공정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유희태 군수는 “완주군은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가 아닌,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의 여론조사 실시를 공식 요청한 상태”라며, “과반수가 반대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통합 논의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주군민 여러분께서도 주민투표 없이 통합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조병용선생추모 국제 검객 열전 마칩표

남원오픈검도대회 폐막 세계 5개국 선수 대거 참가

전세계 최고 검객들의 잔치인 ‘2025 남원오픈검도대회 및 제33회 조병용선생추모검도대회’가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지난달 27일 개막 후 3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남원오픈 국제검도대회는 한국 검도계의 거목인 남원 출신 故 조병용 선생을 추모하는 대회로서, 2015년부터 국제 대회로 승격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검도대회로 꼽힌다.

이번 대회는 일본을 비롯한 중국, 대만, 필리핀 등 해외 5개국에서 100여명의 선수와 임원뿐만 아

니라 전국 17개 시도 2,500여명의 선수 등이 참가하여 대규모로 치러졌다.

대회는 유치부, 남여 초중고등부, 일반부 및 단체전, 개인전으로 구성됐으며 일본 등 여러 해외에서도 대회에 참가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 히요키시(市) 선수단 및 임원 등 30여명이 참가해 조병용 선생과의 인연을 회고하며 헌화식에 참여했다.

히요키시 선수들은 여자 개인전 초등부에서는 가토 미나, 중등부에서는 가와우치 마오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단체전 흥부부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전북자치도 임도사업 평가 ‘1위’ 선정

쌍치면 터살마을 간선임도 ‘우수’ 접근성·환경·재해예방 높아

순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임도 사업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군은 지난달 24일 전북특별자치도와 민간 전문평가위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2025년 임도사업 평가’에서 간선임도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의 생산과 관리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림 내 도로를 말하며, 간선임도는 산림 내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도로다.

이번 평가는 대학교수, 산림공학기술자, 산림기술사 등 산림 및 토목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반이 참여해 진행됐다. 평가단은 2024년 완공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시공품질, 현장 상태 등을 임도설치 규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평가 결과, 쌍치면 종암리 터살마을에 설치된 간선임도는 전체 노선의



순창군이 도내 임도사업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순창군>

중·평면 선형이 우수하고, 배수시설 안정성과 자연친화적인 시공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현지 환경에 적합하고 재해 예방 측면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이 임도는 인근 쌍치 학선, 쌍치 금성 지역의 임도망과 연계될 경우, 주민 이동 편의성 증대는 물론 진입이 어려운 산림 지역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

로 산불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는 등 다방면에서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순창군은 1986년 임도개설 사업을 시작한 이래 올해까지 총 169km의 임도를 신선했으며, 이를 통해 조림, 숲 가꾸기,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 예방 등 체계적인 산림보호 관리는 물론 산촌 지역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보건소, 3년 연속 건강증진 ‘최우수’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분야 시민건강노력 ‘전국 최고’ 입증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 평가에서 3년 연속 ‘종합부문 최우수 기관’ 선정 쾌거를 이뤘다.

이번 평가는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계획부터 운영, 성과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로, 남원시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양한 사업전략 투입,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등에서 높

은 평가를 받았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목표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심뇌혈관질환 예방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보건소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중점 추진했다. 임신부와 영유아를 위한 건강관리, 아동·청소년 대상 건강생활 교육, 고령층 만성질환 예방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전국 평균보다 낮은 모유수유 실천율과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

준비 건강 토털 케어 서비스’, 한의사회와 협력한 ‘한방 난임 지원사업’, 가정 방문 모유수유 클리닉 등 새로운 사업을 도입해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취약 계층에게 방문건강관리와 가정방문 치매검사 등을 통해 건강 사각지대 해소에 힘썼다. 2025년에는 비대면 신체활동 챌린지 강화, 건강 취약지역 대상 운동 프로그램 신설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보건소 직원들의 노력으로 가능했던 성과”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삼례 가온새마을 작은도서관 개관

새마을회관 일부 공간 활용 장서 2,000여권 보유

완주군에 새로운 주민 문화공간이 문을 열었다.

3일 완주군은 기존 삼례읍의 새마을회관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 새롭게 조성한 가온새마을 작은도서관 개관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유의식 군의회 의장, 이경애 의원, 이순덕 의원, 완주군 새마을 회장단, 새마을운동 회원, 주민대표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개관 기념 차담회에서는 축사와 기념 촬영, 자유로운 담소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의미를 되새기고 주민들의 기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완주군은 3일 기존 삼례읍 새마을회관의 일부 공간을 활용한 가온새마을 작은도서관 개관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완주군>

가온새마을 작은도서관은 장서 2,000여 권을 보유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독서·문화 활동의 거점이자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가온새마을 작

은도서관이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만 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이자, 지역 독서운동의 중심점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 한우’ 명품화 출발…300여 농가 한자리

제1회 완주 한우농가 교육 열려 행정·농가 협력 기반 마련

완주군이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3일 완주군과 완주한우협회·농협이 주관하고, 완주한우협회·화산한우영농조합·전주김제완주축협이 주최한 ‘제1회 완주 한우농가 교육’이 완주군청 문예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교육에는 300여 명의 한우농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우산업 정책 방향 △안소 개방의 필요성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품질 향상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중심을 이뤘다.

이번 교육은 완주군 축산 전담조직

신설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로, 민관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육성 전략의 출발점을 마련했다.

정봉락 완주한우협회 지부장의 회사와 함께, 박훈 전북특자도 축산팀장, 송규봉 종축개발협회 본부장 등이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강연을 열었으며, ‘발효사료 구매 지원’과 ‘발효사료 공장 건립’에 대한 추진 방향도 공유됐다.

현재 완주군에는 742개 농가에서 약 3만 4,600마리의 한우를 사육 중이며, 전복 내 5위 규모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 한우의 미래는 행정과 농가가 얼마나 긴밀히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제29회 시각장애인 오감만족 행사 성료

시각장애인 오감 체험 한마당 130여명 참석 지역 소통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시각장애인연합회 순창지회 주관으로 진행된 ‘제29회 시각장애인 오감만족 행사’가 3일 순창군 장미가든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시각장애인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오감을 일깨우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시각장애인을 비롯해 활동지원사, 복지기관 관계자, 기관 및 단체장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최영일 순창군수와 순창중 순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참여자들은 기념식, 체험활동, 노래자랑 등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소중한 추억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오은순 순창지회장은 “오늘 경험한 오감 체험이 일상에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최영일 군수는 “장애가 불편이 되지 않는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순창군이 늘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서-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재난대응 협력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특수차량 지원·합동 훈련 등

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3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기술처장 황인진)와 ‘고속도로 재난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산불, 풍수해, 전기화 화재 등 복합재난이 대형화·상시화됨에 따라, 고속도로에서의 재난 발생 시 양 기관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대규모 재난상황 발생 시 특수차량·자원 상호 지원 △사고 발생 시 우회도로 및 차단 계획 등 정보 공유 △소방-도로공사 간 비상 연락체계 구축 및 상황 전파 △중대재해 대응사례, 안전관리 우수사례 등 정보교류 △풍수해·터널화재 대응을 위한 합동 교육 및 훈련 실시 등이며 특히 양 기관은 보유 장비와 인력, 교육 자료, 기술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재난 발생 시 협력·살수차·덤프트럭 등 특수장비를 현장에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우수민박협의회와 ‘춘향愛특독’ 소통 간담회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3일 산내문화센터에서 ‘춘향愛 특! 독! 지역 유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내 우수민박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민박업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농어촌민박 운영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민박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공유하고자 기획됐으며, 남원시 우수민박협의회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경식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박은 남원 관광의 가장 앞에 서 있는 현장이고, 남원을 찾는 이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얼굴”이라며,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남원의 인성으로 남는 만큼, 민박은 이제 단순한 숙박을 넘어 지역 문화를 소개하고 경험하게 하는 핵심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어촌 민박 간판 통일화 △사업자 등록이 없는 민박 운영자의 재난지원금 수령 문제 △남원시 민박 통합 홈페이지 개설 및 보조사업 확대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시는 관련 법령을 고려한 제도 개선 검토와 함께, 민박업계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민박 간판 통일화의 경우 일부 업소에서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과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관광객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표준 현판 사용 권장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신규·예비농업인 기초영농교육 제공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2025년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2기 교육생 35명을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신규농업인들과 예비농업인들에게 남원 지역의 대표작목을 소개하고, 기초영농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생들은 기초영농기술 이론교육과 귀농 및 청년 농업인의 성공사례를 통해 남원의 전반적인 농업에 대해 배우게 되며 오는 8월 22일부터 매주 금요일 4시간씩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 2번째인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인과 청년농업인등 신규농업인들이 알고 싶어하는 기초영농기술의 체계적 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해 농업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순창군이 이달부터 8월 말까지 한 달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감시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와 단속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중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과 녹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상수원과 하천 등 수질오염에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오염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 감시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호우와 행락철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감시와 순찰을 강화하며, 고의적인 무단 방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등 순찰도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조치를 실시하고, 폐수를 무단 배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에 나서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장마철 폐수 무단 배출 감시를 강화해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익산 함열원광어린이집 원아들, 고사리손으로 따뜻한 나눔

익산시 함열읍은 '함열원광어린이집(원장 최명순)' 원아들이 이웃돕기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함열원광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물건을 판매·구입하는 체험을 통해 경제 개념을 배울 수 있도록 지난달 야시장을 진행했다. 이어 이번 수익금 기탁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최명순 원장은 "아이들이 야시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된 것 같아 뿌듯하다"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주)준건설, 정읍시에 기부금·장학금 총 1천만 원 기탁

정읍 기반의 (주)준건설이 고흥사랑기부제 취지에 동참하며 정읍시에 고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같은 날 정읍시민장학재단에도 500만 원의 장학금을 함께 기탁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뜻을 전했다.

한상남 대표는 "고향에 대한 책임과 정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읍과 함께 성장하며,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HAN 선교회, 진안군에 어려운 이웃 위한 성금 전달

HAN 선교회(담임목사 박철홍)는 3일 진안군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HAN 선교회 박철홍 담임목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AN 선교회는 앞으로도 매년 200만 원의 성금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기로 해 지역사회 나눔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정읍시의회 박일 의장,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적극적인현장중심의정활동

정읍시의회 박일 의장이 지난 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지방의회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박일 의장은 의원들 간의 합리적인 의견 조율을 통해 의회를 원

활하게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와와의 협치와 소통을 통하여 정읍시 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적극적인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 해결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해 오고 있다.

박일 의장은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뜻이 담긴 상이다"며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과 소통을 이어가고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주)영무건설, 정읍시에 장학금 5000만 원 기탁

"지역발전 핵심은 결국 사람"

중견 건설사 (주)영무건설이 정읍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정읍시민장학재단에 5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며 지역 상생의지를 밝혔다. 기탁식은 지난달 30일 정읍시청에서 열렸다.

영무건설 측에서는 김동월 대표이사과 박치원 전무가 참석했다. 장학금을 전달받은 이학수 시장은 따뜻한 나눔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동월 대표이사는 "지역 발전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라며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둔 (주)영무건설은 아파트와 주거용 건물 개발에 주력하는 중견 건설사다.

이번 장학금 기탁을 비롯한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실천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사회복지장학회, 장학금 1천만 원 전달

군산사회복지장학회(이사장 김기봉)가 아동·청소년들의 학업지원과 성장을 돕는데 써달라며, 군산지역아동센터에 장학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 2일 군산사회적경제혁신타운 다목적강연실에서 진행된 이번 전달식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며 꿈을 키워가는 아동·청소년을 격려하고 응원하

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김기봉 이사장은 "매년 이어오고 있는 장학금 지원을 통해 아동들이 자신을 갖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산사회복지장학회는 따뜻한 나눔과 실천으로 군산시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더좋은한방병원 강성현 원장, 원광대 1천만 원 기탁

더좋은한방병원 강성현 원장이 모교인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의료상담학과 발전을 위해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기금 기탁식은 2일 대학 본관 총장실에서 열렸으며, 박성태 총장을 비롯해 유병남 대외협력홍보처장, 의료상담학과 김영전 학과장, 정문주, 강형원 교수 등이 함께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의료상담학과 기금에 앞서 지금까지 한의과대학 '호풍장학금'

을 통해서 꾸준히 모교를 지원해 온 강성현 원장은 "원광대는 현재의 나를 키워준 소중한 곳"이라며 "상담학 공부를 통해 또 다른 성장의 계기를 얻었기에, 그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에 박성태 총장은 "강성현 원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대학 전체에 큰 힘이 된다"며 "통합의료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최성민 기자



무주 무풍면, 지역 상생 발전 도모 3도 3면 상호 기부 동참

무주군 무풍면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상호 발전을 위해 150만 원을 경남 거창군 고제면에 기부하며 경북 김천시 대덕면, 경남 거창군 고제면과 함께 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에 동참했다.

이번 상호 기부는 대덕산을 중심으로 동서 화합을 도모해 온 3도(전북, 경북, 경남) 3면(무주, 대덕, 고제)이 매년 '난남의 날' 행사를 통해 인적·물적 교류를 진행하며 얻은 결실로, 지역 간 경계를 넘는 △상호 협력과 연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지역소멸 위기 대응,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익산시 주민 나성대 씨, 생활비 모아 성금 500만 원 기탁

익산시 삼성동은 지역 주민 나성대 씨가 생활비를 아껴 모아 마련한 성금 500만 원을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나성대 씨는 2021년에도 1,000만 원을 익산시에 기부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틈틈이 생활비를 모아 또다시 나눔을 실천했다.

특히 최근에는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큰 슬픔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의 손길을 내밀어 깊은 감동을 더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남원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어르신께 전하는 '보행의 자유'

남원시 노암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차미화)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거동 불편 주민 4명에게 보행보조기를 지급했다.

보행보조기를 지급받은 한 어르신은 "평소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들에게 동행을 부탁하는 것이 고맙고 미안하기도 했다"며, "이제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이런 혜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인사] 전주시 인사발령사항 (25.7.3.일자)

△기획조정실장 지방부이사관 최현창 △인구청년정책국장 지방서기관 김은주 △상하수도본부장 지방서기관 이기섭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지방서기관 박남미 △덕진구청장 지방서기관 김종성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지방과학기술서기관 김문기

무더운 여름철, 자동차 안에 놔두면 안되는것!

손 소독제



전자기기와 운동화

안경과 선글라스



라이터, 스프레이, 페트병

〈一事一言〉



고백한다, 30년 기자인데 언론 윤리를 몰랐다(1)

송요훈
언론인

고백할 게 있다. 기자로 30년 넘게 밥을 먹고 살았지만, 언론 윤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입사 이후 언론 윤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고, 받으라는 지시나 권유를 받은 적도 없었다. 그런데,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기자로 살면서 내가 배운 언론 윤리는 선배들이 술자리에서 우스개 삼아 들려준 ‘기자의 5대 금기어’가 전부였다. 거두절미하지 말라, 침소봉대하지 말라, 아전인수하지 말라, 건강부화하지 말라, 흑세무민하지 말라... 그것이 기자가 절대 해서는 금기사항이었고, 재치 넘치는 누구는 남이 기사를 쓴다고 쫓대 없이 따라 쓰는 부회 노동도 추가해야 한다고 했었다. 그러면 우리는 박장대소하며 깔깔거리곤 했었다.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지났을 때, 미드 〈뉴스룸〉을 보다 얼굴이 화끈거린 적이 있었다. 드라마 속의 뉴스룸에선 제보자는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혹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검증하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하는 취재원을 익명으로 보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혹시라도 불순한 의도가 있어 언론을 이용하려는 건 아닌지 기자와 보도 책임자가 토론하고 있었다. 그 장면을 보다 얼굴이 화끈거린 건, 기자인 나는 현실에서 단 한 번도 그런 걸 목격한 적이 없어서였다. MBC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

로 맡은 일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MBC 보도가 공정했는지 따져보는 일이었다. 그때의 MBC는 시청자들에게 ‘앨범신’이라는 조롱으로 불렸고, 신뢰는 땅바닥을 뒹구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으로 파고들었다는 자조가 팽배했었다. 손에 피 묻히는 일이라 꺼렸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서 그 일을 맡고 말았는데, 막상 맡고 보니 큰 고민에 부딪혔다. 그 고민이란 이런 거였다. 나는 어떤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하지 만, 그 보도를 한 기자나 그 보도를 승인한 부장, 국장은 공정하다고 하면 무어라 반박해야 하는가. 혹시 정치공작을 하던 국정원 쪽에서 자료를 받아 보도한 게 아니냐고 물었을 때, 취재원 보호를 내세워 밝힐 수 없다고 하면 뭐라고 추궁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다 퍼뜩 떠오른 게 미드 〈뉴스룸〉이었고, MBC는 노사 합의로 ‘방송강령’을 제정했다는 기억이 떠올랐다. 방송강령을 뒤져보니 거기에 다 있었다. 취재와 보도를 할 때 기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보도준칙’이 있었다. 미국 드라마 〈뉴스룸〉에서 보았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과 제보자의 신뢰성을 검증해야 하는 이유와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보도의 원칙이 거기에 글자로 쓰여 있었다. 기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 글자로 또박또박 쓰여 있었다. 그 방송강령은 노사 합의로 제정되

었기에 사규와 같은 효력이 있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 공정한 보도인가 하는 추상적 가치가 아닌 보도준칙을 지켰는가 하는 행위만 따져보면 된다고 생각하니 모든 고민이 일거에 해소된 것 같았다.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한다. 안 하면 불법이다. 경찰관 복무수칙에 의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도준칙도 그렇다. 기자가 보도준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다. 검사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때 그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나 자료를 같이 넘겨야 한다. 그것이 검사의 객관 의무다. 그러한 객관의 의무는 기자에게도 있다. 예를 들어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각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던 중에 검찰과 방통위, 해수부의 보고는 도중에 중단시켰다고 한다. 그랬더니 어떤 매체는 국정기획위가 보고하는 공무원들에게 호통을 쳤다느니 군기 잡기를 한다느니 감질을 한다느니 하며 국정기획위를 비판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 방통위, 해수부의 업무 보고를 중단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업무 보고의 내용이 부실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과 기소의 완전 분리를 공약했는데, 검찰은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과 방통위의 독립은 와해되다시피 했는데 방통위의 보고에는 반성도

개선 방안도 없었다 하고, 해수부의 업무 보고에는 부산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사실상 빠져 있었다고 한다. 그런 사실을 같이 보도해야 독자들은 국정기획위가 업무 보고를 중단시킨 전모를 이해할 수 있다. 언론 윤리는 그런 보도를 ‘사실 보도’라 한다. 한국기자협회의 윤리현장에는 정확한 사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맥락으로 전달하고, 정보원과 취재 과정 등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알리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자세로 시사비비를 가리는 것이 언론 본연의 역할이라고 쓰여 있다. 그런데, 기자협회의 윤리현장을 읽어본 기자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내가 보기에는 1%도 안 될 것 같다. 30년차 기자가 되도록 글자로 된 언론 윤리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나처럼.〈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만들레에 기 계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링크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전북, 신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미래 열어야

전북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새 정부의 청정 에너지 확대 기조에 발맞춰 전북도는 그동안 쌓아온 인프라와 정책 경험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도약하려는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2024년 기준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9천833GWh에 달해 전국 2위를 차지한 것은 전북이 에너지 전환의 선도 지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음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전북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본격적인 전기는 2018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시작됐다. 이후 새만금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속속 들어서며 관련 연구기관 유치와 전문 인력 양성, 수소산업 기반 확충 등 클러스터화 전략이 전개됐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원전 중심 정책 기조와 전력 계통의 포화 등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한동안 성장에 제동이 걸렸던 것도 사실이다. 현재 전북은 다시 한번 기회를 맞고 있다. 새만금 내측 태양광 중심의 3GW, 군산·서남권 해상풍력 중심의 4GW 등 총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조성될 경우, 도 전체 전력 자립은 물론 국내 에너지 대전환의 견인차 역할도 기대된다. 특히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고창·부안 해역에 14조7천억을 투입해 추진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로, 2031년 완공하면 지역경제에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수소에너지 부문에서도 전북은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전주·완주 수소소비도시를 시작으로, 수소융합 검사인증센터,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

센터,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특화센터 등 기술 상용화 및 인증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재생에너지 대전환’은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산업체계 개편을 위한 미래전략이다. 대통령실에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을 배치하고 기후에너지부 신설까지 추진한 것 역시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상이다. 이에 발맞춰 전북이 제안한 ‘재생에너지 누리길’은 주목할 만한 지역형 모델이다. 전북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기업과 국가,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정책은 RE100을 추진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니즈에도 부합하며 국가 탄소중립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제도와 행정의 뒷받침 없이는 성과를 장담할 수 없다. 급속히 늘어난 재생에너지로 인해 전력계통 포화 현상이 심화되며, 도내 변전소들이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돼 신규 발전사업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은 시급한 개선 과제다. 정부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확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신속 선정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적기에 이행해야 한다. 분산형 전원 확대와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실현을 위한 규제 개선도 절실하다. 전북의 에너지 전환 전략은 대한민국 전체의 에너지 미래를 바꾸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함께 도민들의 관심, 기업과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이 병행돼야 한다. 기후위기의 시대, 전북은 다시 한번 국가적 전환의 교두보로서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야 할 때다.

문화재열전



일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유물, 불교조각, 불상
-지정일- 2014년 10월 31일
-시대- 조선시대
-소재지- 순창군 담순로 2168-33 (적성면, 일광사)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창간/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안주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원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여름날 / 김 사 인

풀들이
시드렁거드렁 자랍니다

제 오래비 시누 올케에다
시아미 당숙 조카 생질
두루 어우러져
여름 한낮 한가합니다

봉숭아 채송화 분꽃에 양아욱
산나리 고추가 핍니다
언니 아우 함께 핍니다

암탉은 고질고질한
병아리 두엇 데리고
동네 한 바퀴 의젓합니다

나도 빼약거리는
내 새끼 하나하고 그 속에 앉아
어쩌다 비 개인 여름 한나절
시드렁거드렁 그것들 푹니다

긴 듯도 해서 긴 듯도 해서
눈이 삽니다

시인 약력 : 1956년 충북 보은 출생.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학 재학 시절 대학신문에 ‘戀詩를 위한 이미지 연습’ ‘밤

지내기’ 등의 시를 발표한 청년 문사였다. ‘서울대 반정부 유인물 배포 미수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됐다. 1982년 ‘시와 경제’에 동인으로 참가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 이후 시인으로, 평

론가로, 등단하고 민중문학 진영의 이론가로 활동했다. ‘한국문학의 현단계’에 평론 ‘지금 이곳에서의 시’를 발표했다. 1987년 첫 시집 ‘밤에 쓰는 편지’를 펴냈다.



도민의 제보가 지역사회 만드힘이 됩니다

인터넷 신문 -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282-9601 기사제보 -282-9600 신문 구독 828-9603



중앙부처 대응 현지 전략회의

민선 8기 심덕섭호 3년 성과

고창군, 경제 키우고 도시활력 높였다

1777억 규모 터미널도시재생 국가혁신지구 본격화 대한민국 법정 문화도시 선정·농촌협약 공모 등

△국가예산 증대·초대형 공모선정 잇따라

2025년 고창군 국가예산은 3844억원으로, 전년(2024년) 대비 8.8%가 늘었다. 12·3내란에 따른 정국 혼란 속에서도 심덕섭 고창군수와 국회 예결소위 윤준병 국회의원간의 끈끈한 공조체제가 빛난 순간이었다.

재정자립도 8.2% 수준에 불과한 고창군은 미래 먹거리를 챙기기 위해 국가에 산학보와 정부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를 비롯한 마당발 심 군수의 인맥이 총동원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취임 첫 해 '터미널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선정(총사업비 1777억원)'과 '대한민국 법정 문화도시 선정(국비 등 160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건설비의 최대 80%지

원)', '농촌협약 공모(총사업비 437억원 상당)', '고창 북부권(흥덕·성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총사업비 300억원 상당)'을 잇달아 따내며 오랜 낙후를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출생아·생활인구·청년농업인 늘었다

고창군에서 희망찬 아기울음 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4년 1년 동안 고창군 전체 출생아는 169명으로, 2023년 137명에서 크게 늘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선거공약으로 2023년부터 산후조리비를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높였다. 출산장려금 역시 기존 첫째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둘째 300→500만원, 셋째 75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이상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고창군을 다녀간 생활인구도 주민등록인구의 8배에 육박하고 있다. 가장 최

근 통계인 2024년 10월 기준 고창군의 생활인구는 40만9641명(주민등록인구 5만1000명)에 달하고 있다.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인구 뿐만 아니라 체류인구(특정 지역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방문자)와 외국인도 포함한다. 이는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의 다양한 매력을 즐기는 관광객을 비롯해, 스포츠 활성화, 외국인계절근로자 등이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외부 청년농업인 유입도 늘고 있다. 올해 고창군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최종 선정자 37명 중 35%가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들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터미널도시재생 국가혁신지구 본격화 "농촌 도시기능의 혁신사례"

교통·주거·청년창업 등을 묶은 고창의 중심지 재편이 본격 시작됐다. 고창 터미널혁신지구는 2022년 12월 군 단위에선 전국 최초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

토교통부의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다. 사업비만 1777억원으로, 고창군이 추진하는 단일사업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다.

새로운 터미널은 청년층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일자리와 주거시설을 동시에 지원한다. 먼저, 안락한 대합실과 청년창업공간, 유기농연구소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는, 맞은편 주차장 부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1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 임시 터미널은 고창읍 묵화예식장과 농협 하나로마트 사이로 이전돼 7월7일부터 운영된다.

△고창사랑상품권 활성화 통한 소상공인 지원

심덕섭 고창군수는 2022년 7월 4일 취임 1호 결재사업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명하는 등 지난 3년여간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결에 각별히 신경써 왔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발행된 고창사랑상품권은 명실공히 군민 소비생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군민들의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상품권 구매한도를 70만원으로 높였고, 연중 10%할인판매와 명절 특별할인판매가 이뤄졌고, 올 상반기에만 451억원이 발행되며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외에도 고창군은 물가안정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지난해 25개소에서 올해 52개소로 대폭 확대 지정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지역 물가안정과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대되면서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돈버는 농업(수박·지리적 표시제 등)·복분자 명가 재건) 만들었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고창군수박연합회는 2024년 고창수박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성사시켰다. 2007년 고창복분자 이후 17년 만에 이뤄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은 고창지역 수박 재배 농가의 오랜 염원을 해결하고, 지역 농특산품의 위상을 되찾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올해 고창군 명품수박은 1당이에 500

만원의 경매 신기록을 시작으로, 고창군 전체 수박의 도매 시세도 평균 10% 이상 상승해 지역 농가의 수익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고창군은 올 여름 한 시즌 동안 약 80억 원 규모의 직·간접적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분자 명가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복분자 재배 면적은 2022년 1725농가에서 올해 1915농가로 확대됐고, 올해 복분자 면적 역시 407ha로 3년전(298ha)과 비교해 대폭 늘었다.

고창군은 무병묘 복분자공급을 비롯해 복분자 영양제 지원, 생산자려금·수매장려금 지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복분자 도시를 일으켜 세우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멜론과 미니수박, 바나나, 애플망고 등 열대농업 등을 집중육성하고 있고, 친환경쌀 생산확대, 풍천장어 해외수출 확대 등을 통해 실질소득 향상을 이뤄가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無心圓
무심원

삶의 휴식공간

유희시설의 변화와 지역사회 활성화

함께가는 액션그룹[천마양쟁, 티라미슈]
무주군의 산림자원을 형상화한 실내 인테리어
무주 명소로 거듭나는 무심원

MUJU (사)무주군신활력플러스사업단
063-322-0998



MUSIMONE.OFFICIAL